



## 인쇄미디어의 새로운 도전 JGAS 2013 디지털과 후가공이 보여주는 인쇄 시장의 미래

일본국제종합인쇄기자재전 JGAS 2013이 지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나올 간 약 3만1000여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한국후지제록스를 비롯한 다양한 프린팅 기업들이 일본 동경을 방문해 일본 및 전 세계 인쇄 시장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새로운 인쇄기기와 솔루션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민 한국후지제록스  
PS영업사업부 BD추진부 부장

### 중소형 후가공 기기 약진

디지털, 오프셋, 잉크젯, 피니싱(후가공)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참가했지만,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후가공이었다. 오히려 오프셋 기기에 강한 전통 업체들은 기존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참가했고, 호리존과 같은 후가

공 업체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부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그 동안 아이펙스(IPEX), 드루파(drupa), 차이나프린트(China Print)와 같은 국제인쇄전시회가 새로운 기기, 기술, 워크플로에 주목했다면, 이번 JGAS는 인쇄물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디지털 인쇄와 후가공에 보다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디지털 인쇄기와 접목시킬 수 있는 중소형 후가공 기기가 많이 전시된 점을 눈여겨볼 만 했다. 인쇄 후가공 기기를 다루는 업체들이 디지털 인쇄의 워크플로에 맞는 다양한 후가공 기기를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 가치 향상·차별화·다양한 접근 방식

후가공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보다 가치 있는 인쇄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빠르게 다품종 소량화, 맞춤화되는 인쇄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바일 기기의 보급,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과 삶의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정보전달의 주요 수단이 종이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 점차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트렌드와 함께 기존의 인쇄물량은 줄어드는 한편, 소량 다품종 인쇄, 주문형·맞춤형 인쇄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즉 단순히 정보 전달 목적의 인쇄물보다 어떤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기술들은 인쇄 산업에 위협이 될 수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웹투프린트 등 디지털과 연계할 수 있는 솔루션과 인쇄물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후가공 기기를 준비하지 못한 업체들에겐 위협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갖춘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과 크게 관계없는 인쇄광고물에 더 이상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우편함에 가득한 청구서와 DM은 제대로 읽지 않고 버리기 일쑤다. 이제는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명세서의 경우, 고객의 거래내역과 일괄적인 광고 문구를 나열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나이, 직업, 성별, 기호 등 각 고객의 특성에 맞춘 광고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 인쇄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양지업

JGAS 전시장을 둘러본 후 고객들과 함께 후지제록스의 고객사인 마츠모토 프린팅과 동양지업(株)을 방문했다. 마츠모토 프린팅은 후지제록스의 디지털 인쇄기 iGen 시리즈를 활용해 포토북과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사업을 전개하며, 새로운 수익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동양지업은 오사카와 도쿄를 거점으로 기획 및 제작에서부터 인쇄까지 모든 솔루션을 지원하는 종합 인쇄사로 상업인쇄, 출판인쇄,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은 이 회사의 큰 규모와 다양한 설비가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동양지업은 고속 출력이 가능한 잉크젯 컬러 인쇄기 도입을 검토하던 중 단기간에 대량 출력이 가능하고 개개인의 관심 정보를 인쇄물에 추가할 수 있는 후지제록스 2800 잉크젯 컬러 연속지 프린팅 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했다. 특히 향후 인쇄시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가공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동양지업은 1:1 가변 인쇄가 가능한 후지제록스 2800을 활용하고자 했다. 이 제품은 후지제록스가 JGAS에 전시한 후지제록스 1400 잉크젯 컬러 연속지 프린팅 시스템의 상위機種으로, 분당 200m(A4 크기로 환산할 경우 분당 2624매)의 고속 출력이 가능한 제품이다.

동양지업은 생명보험회사의 고객 보고서, 학생 성적표 등에 가변 인쇄를 적용해 개인마다 서로 다른 정보를 알기 쉽게 인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쇄시와 가공시에는 중

이를 당겨 텐션을 유지해야 하는데, 표면 인쇄, 뒷면 인쇄, 가공 등의 공정이 동일하지 않으면 그 때마다 텐션을 제어해줘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나빠진다. 그래서 동양지업은 전 공정 데이터 처리와 후공정의 재단이나 접지 등의 가공을 윈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동양지업의 인쇄기기와 후가공 기기의 동선은 정말 효율적으로 잘 구성돼 있었다. 동양지업은 후지제록스와 오랜 파트너로 서로 협력해왔고, 후지제록스의 서비스 시스템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후지제록스 2800의 경우 동양지업의 핵심 사업을 지원하는 제품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서비스 체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동양지업의 설명이었다.

디지털 잉크젯 컬러 연속지 시스템과 가변 솔루션, 다양한 후가공 기기 등 동양지업은 인쇄 시장의 변화에 그 어떤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쇄 업체들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다.

### 커뮤니케이션 변화가 인쇄의 진화

IT 기술의 진전에 따라 정보 전달 기술과 방식은 크게 바뀌고 있다. 인쇄 미디어 분야에서도 인쇄 생산 방식이나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인쇄 관련 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급속한 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후가공 등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해 인쇄물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국제인쇄박람회에서도 마찬가지로 JGAS에서도 인쇄 시장과 미디어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인쇄 시장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에 따라 그 기술과 솔루션이 함께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 오프셋, 후가공 및 솔루션을 적절히 활용해 누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인쇄물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인쇄 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1. JGAS2013 캐치프레이즈 2. JGAS2013 한국후지제록스 고객참가단 3. 가변인쇄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동양지업